

CJ제일제당, 건강사업 독립... “헬스케어 전문기업’ 도약”

내년 1월1일 ‘CJ 웰케어’ 출범
100% 현물출자 방식 분할
유산균·맞춤형 건기식 주력
2025년까지 업계 선두 목표

CJ제일제당 건강사업부가 독립해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

CJ제일제당은 건강사업 CIC(사내 독립기업)를 100%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규 법인명은 ‘CJ Wellcare(웰케어)’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CJ 웰케어는 한층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식물성 프리미엄 유산균 시장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세분화된 건강 문제를 케어하는 스페셜티(전문) 제품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선두주자로 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CJ의 4대 성장 엔진 중 하나인 ‘웰니스(Wellness)’ 사업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업계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은 2002년 ‘CJ 뉴트라’



CJ제일제당의 건기식 대표 제품.

/CJ제일제당

라는 브랜드로 건기식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비타민, 미네랄 등이 주류였던 시장에 ‘히비스커스’, ‘히알루론산’, ‘쏘팔메토’ 등 기능성 소재들을 내놓으며 한 발 앞선 제품들을 선보였다.

다이어트(팻다운), 눈건강(아이시안), 피부보습(이너비), 남성 시니어건강(전립소) 등은 모두 CJ제일제당이 창출한 기능성 시장이다. 특히 유산균의 경우 7년여의 연구 끝에 2013년 업계 최초로 국내 개발 균주(CJLP133)를 식약

처로부터 개별인정 받고 ‘기능성 유산균 시장’을 개척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CJ제일제당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트렌드를 선도해왔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식품사업에서 건강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R&D, 마케팅, 영업의 전 밸류체인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CJ 웰케어는 유산균과 전문 제품의

선택·집중 전략을 통해 시장 진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산균의 경우 독자 개발한 식물성 균주 기반의 100억 CFU(보장균수) 이상 고향량 제품 라인업으로 ‘BYO유산균’ 브랜드를 대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이어트, 면역력 등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유산균 개발에 주력한다.

신규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전문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전립소·팻다운·이너비 등 기존 브랜드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성

카테고리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 R&D 센터를 별도로 두고 빅데이터 분석 및 연구 리서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다가올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을 겨냥한 사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이미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갖고 있는 EDGC, 케어위드와 협업을 강화해 생애 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인수한 생명과학 전문기업 천랩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맞춤형 유산균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CJ 웰케어의 장승훈 상무는 “지난 20년간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CJ의 건강사업 노하우와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제품을 지속 선보이고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여자축구 친선전, 쿠광플레이서 독점 중계

뉴질랜드와 안방서 친선 A매치
1차전 27일 14시, 2차전 30일 19시

쿠광플레이어가 오는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를 디지털 독점 생중계한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전력 점검을 위해 친선전을 연달아 열고 있다. 지난 10월 여자 축구대표팀은 미국

원정을 통해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번엔 뉴질랜드 여자 축구대표팀을 한국으로 초청해 2년 7개월만에 친선 A매치를 갖게 됐다. 경기는 1차전 27일 오후 2시와 2차전 30일 오후 7시다.

뉴질랜드는 지난 8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한 세계 여자랭킹에서 23위로 18위인 한국 보다 순위가 낮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앞서 부상으로 빠졌던 수비수 심서연 선수와 미드필더 이

민아 선수가 복귀하면서 최강의 스쿼드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쿠광플레이어는 올해 3월 축구 한일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들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들을 생중계하고 있다. 쿠광플레이어는 대한 축구협회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 지난 11월 8일 조인식을 가졌으며 오는 2025년 8월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i@

위메프, 현지인 맛집 ‘식품 큐레이션’ 선보

위메프 식품 전문 큐레이션 서비스 ‘맛신선’이 온라인에서 떠나는 전국 맛집 투어를 테마로 기획전을 연다.

위메프는 국내 여행 명소와 지역 대표 음식을 추천하는 ‘식탁으로 떠나는 여행’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탁여행은 위메프 식품 전문 MD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검증한 맛집을 소개하는 기획이다. 광고로 유명세를 탄 곳이 아닌 이른바 ‘현지인 맛집’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엄선된 맛집 음식은 바로 주문해 HMR 형태로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판매한다.

첫 주지는 제주도다. 위메프는 24일까지 맛신선 카테고리의 ‘식탁여행’ 코너를 통해 제주도 특산 음식과 맛집을 선보인다.

특산 음식 주요 상품은 ▲제주흑돼지 형켄슈바인학센 ▲감굴 오메기떡 3종 ▲원조 고사리 육개장 ▲반하다옛 고사리 육개장 ▲제주 감굴 떡볶이+떡 좋은어묵탕 ▲흑돼지고기 김치찌개 밀키트 등이다.

/김서현 기자

“임금명세서 작성, 점주님 대신 해드려요”

CU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작성·교부·무료 교육 등 서비스

지난 19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다. CU는 23일 가맹점주의 복잡한 명세서 교부·발급을 돕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를 선보인다.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는 노무 관리 및 교육 앱 ‘CU스쿨’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스태프의 기본정보와 기본급 등을 입력하면 기본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항목부터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 항목들이 계산돼 세부 항목별 금액이 자동으로 기입된 임금명세서가 생성된다. 가맹점주는 이렇게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스태프에게 간편하게 교부할 수 있다.

CU스쿨은 노무 통합 솔루션 앱(App) ‘퇴근해CU’에 교육 기능을 추가해 올해 9월 새롭게 개편한 앱이다. CU는



CU는 가맹점주를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발 더 나아가 가맹점주가 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도 제공한다.

CU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둔 지난 16일부터 전 가맹점 및 직영점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점포에 비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최신화해 교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점포 운영 중에 노무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 노무사와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가맹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서현 기자

스타벅스, 청년 구직자에 바리스타 교육

‘바리스타 일 경험’ 프로그램 실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리스타 일 경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시범운영 교육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벅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리스타 일 경험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체결한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커피 지식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만 18~34세 청년들이며, 이번 시범운영 교육에는 총 20명의 청년 교육생이 참여했다.

스타벅스는 교육생들이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전문 사내 강사단을 전담 강사로 배치해 총 40시간의 바리스타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은 오프라인 실습 교육, 온라인 교육, 매장 투어, 개인 과제 순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생들은 교육 시작 후 이틀간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통해 커피 테이스팅에 참여하고 라떼아트, 브루잉 추출 실습 등 실제 바리스타 직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배운다.

참가 교육생 20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되며, 스타벅스는 이번 시범운영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 교육생 인원을 분기별 50명으로 확대해 연간 20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더 많은 청년에게 바리스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락토페린 쪽 다이어트 시크릿’ 출시

내일 10시25분 생방송서 첫 판매

CJ온스타일은 25일 10시 25분에 생방송으로 ‘락토페린 쪽 다이어트 시크릿’의 첫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락토페린 쪽다이어트 시크릿은 다이어트 보조제다. 국내 최초로 네덜란드산 우유에서 얻은 ‘락토페린’을 함유해 체중 감소, BMI 감소, 내장지방 면적 감소 등 몸매 관리에 도움을 준다.

상품 구성은 8주 분량과 16주 분량으로 방송 중 16주 분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락토페린은 초유의 핵심 성분으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꾸준히 사랑받아온 인기 건강기능 식품 소재다. 쪽 다이어트



시크릿은 위에서 먼저 분해되는 ‘락토페린’의 특성을 고려해 장용성 코팅 처리로 장까지 도달해 흡수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FDA GRAS 등재 및 유럽 식품 안전청(EFSA) 노벨 푸드에 등록됐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0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김서현 기자